

양현종, “올해는 꿈을 꾸는 시즌 같다”

KIA 타이거즈 양현종, 한국시리즈 MVP 차지... 생애 첫 20승 팀 정규리그 우승 이끌어

KIA 타이거즈 양현종(29)이 한국시리즈 MVP를 거머쥐었다. 양현종은 지난 30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 한국시리즈 5차전에서 9회말 등판, 7-6 승리를 지켜냈다. 한국시리즈 2차전에서 완봉승을 따냈던 양현종은 5차전에서 세이브를 거두 시리즈 MVP를 수상했다. 양현종은 지난 시즌 투포에서 48표를 획득해 팀 동료 비나디나(24표), 이범호(2표)를 따돌렸다. 올해 양현종은 가장 뜨거운 시즌을 보냈다. 생애 처음으로 20승 고지에 오르면서 팀의 정규리그 우승을 이끌었다. 한국시리즈 2차전에서도 눈부신 역투로 두산의 기세를 꺾어 시리즈 판도를 바꿨다. 양현종은 “8차전을 가게 되면 스스로 부담이 됐을 거 같다. 두산이 7-6까지 따라와서 분위기가 두산 쪽으로 넘어갔었다. 분위기 잡재우기 위해서 오늘 끝내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등판하게 되면 열심히 던지려고 했다. 컨디션도 좋았다. 하늘의 기운이 많아 따랐던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30일 오후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17 KBO 한국시리즈 5차전 KIA 타이거즈 대 두산 베어스 경기, KIA가 7-6으로 한국시리즈를 우승 후 KIA 양현종이 MVP 부상으로 수여 받은 차량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입장이고, 게임이 너무 타이트해서 안 나가나 했다. 코치님이 휘기 때 나갈래?”, 9회 그냥 나갈래 물어보셨다. 9회에 처음부터 나갈래고 했다. 의외로 마운드에 올라갔을 때 긴장이 안됐다. 선발로 나온 1회처럼 긴장이 덜 됐다. 상대타자가 김재

환과 오재일이라 집중을 했다. 공이 가운데로 물리긴 했는데 하나 하나 전력으로 던졌다.” -역전주자 나갔을 때 기분은? “내일이 없다고 생각했다. 투구수도 늘어서 6차전 선발이 무의미했다. 두산 선수

들이 컨디션이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라 모래까지 가면 안되겠다고 생각했다. 내 직구를 믿었다.” -2차전 9회와 오늘 9회 중 어느 경기가 더 긴장했어? “오늘이 더 긴장했다. 2차전은 내가 시작하고 끝을 냈지만, 오늘은 내가 중간에 나왔다. 선수들이 쌓은 점수를 지키는 게 조금은 부담이 됐던 것 같다.” -8년 전 우승과 오늘 느낌은 무엇이 다른가? “8년 전보다 지금 눈물이 덜 나왔다. 8년 전에 긴박한 상황에서 이겨 힘들었던 부분이 떠오르면서 눈물이 났다. 오늘도 힘들었지만 안도의 눈물이었다. 드디어 올 시즌이 끝났구나 생각하며 뿌듯했다. 8년 전엔 끝내기 홈런이 나와서 많이 울었던 것 같다.” -김주형과 무슨 얘기를 나눴어? “주형이 형이 광주에서 못살뻔 했다. 고맙다고 하더라. 주형이 형은 잘하려고 했다. 올해 어느 선수보다 고생을 했고, 힘들어했다. 내가 잘 막아서 다행이다.” -내년 계약과 계획은? “아직 잘 모르겠다. 우승을 했기 때문에 구단에서 좋게 신경을 써줄 것 같다. 다른 팀이나 해외보다 KIA라는 팀을 더 생각하고 있다. 구단에서 잘 대우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11번 한국시리즈 올라와서 모두 우승한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비결이 있나? “우리 팀에는 자부심이 있고, 자신감도 있다. 하늘에서 도와준 것이라 고 생각한다. 1, 2차전 실수도 많았는데 운도 따랐다. 하늘이 도와줬다. 내년에도 정규시즌 우승한다면 한국시리즈 우승 전봉이 끊기지 않게 노력하겠다.”

◇양현종 일문일답

-한국시리즈에서 완봉승과 세이브를 거뒀는데 소감은? “올 시즌은 꿈을 꾸는 시즌 같다. 20승도 해왔고 정규시즌 우승도 해봤다. 한국시리즈 최초 1-0 완봉승도 했다. 어렸을 때부터 마지막을 장식하는 상상을 해봤는데 모든 게 현실이 돼서 믿기지 않는다.” -언제 나간다는 걸 알았어? “8회초 시작했을 때 코치님이 스피어만 신고 있으라고 했다. 6차전 준비하는

도교육청 소속 고등부 전국체전 종합9위로 4단계 '경총'

최근 충청북도 일원에서 개최된 제88회 전국체육대회에 42개 종목, 513명이 참가한 전북도교육청이 23개 종목에 걸쳐 금메달 17개, 은메달 16개, 동메달 31개 총 64개의 메달을 획득해 2016년 대비 고등부 종합 13위에서 종합 9위로 4단계를 경총 뛰어 올랐다. 특히 다관왕 부문에서 역도 종목의 순창고 이승준 학생은 용상과 종합에서, 자전거 종목의 전북체고 김나연 학생은 도로경기에서 단체와 개인에서, 골프종목의 고창북고 손기현 학생은 일반부 종목에 참가하여 단체와 개인에서 2관왕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그리고 전주상업정보고의 소총단체 종목에서 1,239.4으로 대회신기록과 함께 동메달을 획득하였는데 은메달과 총점에서 불과 0.2점 차이를 보이는 등 높은 경기력으로 어느 해보다 풍성한 결실을 거두어 전라북도 학교체육의 밝은 미래를 전망케 했다. 향후 2019년 전북에서 개최되는 제90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상위권 입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종목인 육상, 수영, 체조 등 다메달 종목과 체급경기 및 고득점 단체종목의 경기력이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다. 따라서 도교육청, 도체육회, 지방자치단체는 전북체육진흥위원회의 등 관계 기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기초종목 및 비인기 지역특화종목과 메달유망종목에 대한 다각적인 육성지원으로 2019년 전북도 개최 제90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해은기자

올림픽 성화, 30년 만에 한국땅 밟는다

올림픽 성화가 1988 서울 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한국 땅을 밟는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지난 24일 체코에서 열린 그리스 봉송을 마친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기 전세기를 통해 다음달 1일 한국에 도착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4일(한국시간) 그리스 고대 도시 올림피아에서 채화된 성화는 관례에 따라 그리스 전역을 돌고 30일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에 안치됐다. 성화는 31일 아테네 파나티나이코 스타디움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인수대에 공식 인수되며, 대한항공 전세기를 타고 11월 1일 오전(10시) 인천국제공항에 들어온다. 그리스 올림픽위원회와 조직위원회의 문화행사로 시작을 알릴 인수식은 올림픽 참가와 애국가 그리스 찬가에 이어 스타디움 내에서의 마지막 성화 봉송과 성화대 점화의 순으로 진행된다. 스타디움 내 성화 봉송에서는 대한민국 동계올림픽 첫 금메달(1992·알베르빌)이라는 새로운 지평을 연 김기훈 전 쇼트트랙 선수가 성화대 점화 바로 전(前) 주자로 뛴다. 그리고 마지막 그리스 주자가 성화를 성화대에 점화하면 인수 의식행사가 진행된다. 이후 스피로스 카포라로스 그리스 올림픽위원회 위원장과 이희범 조직위원장의 연설이 끝난 후 제사장이 성화를 점화해 그리스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그 성화는 다시 이희범 조직위원장에게 이양된다. 이렇게 이양된 성화는 30년 만에 한국땅을 밟는다. 인수된 성화는 이날 현지에서 출발해 오는 11월 1일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도착하며, 도착 직후 국민환영단으로부터 환영을 받는다.

/뉴시스

손흥민, 챔피언스리그 호날두와 재대결

내일 H조 조별리그 4차전 레알 마드리드와 격돌

손흥민(토트넘)이 다시 한번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와 맞대결한다. 토트넘은 2일(한국시간) 영국 런던 웬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17~2018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UCL) H조 조별리그 4차전에서 레알 마드리드(스페인)와 격돌한다. 앞서 손흥민은 지난 18일 조별리그 3차전에서 후반 44분 교체 출전한 탓에 호날두와 이렇다 할 대결을 펼치지 못했다. 손흥민은 지난 23일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정규리그 첫 골을 기록했고 지난 26일

리그컵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도 도움 두 개를 기록하며 최고의 컨디션을 보이고 있다. 다만 토트넘은 골잡이 해리 케인의 부상이 걱정이다. 케인은 리버풀전에서 멀티골을 기록했지만 햄스트링 부상으로 교체됐다. 케인의 부상이 길어짐에 따라 손흥민의 선발 출전도 점쳐지고 있다. 손흥민은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서 1골을 기록중이다. 대회 3연패를 노리는 레알 마드리드의

분위기는 좋지 않다. 호날두는 지난 24일 국제축구연맹(FIFA)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했지만 팀은 지난 30일 프리메라리가 10라운드 지로나 원정경기서 1-2로 역전패하며 주춤하고 있다. 토트넘은 H조에서 레알 마드리드와 함께 공동 1위를 달리고 있다. 승점(7점·2승1무)은 물론 골득실(+5), 다득점(7), 실점(2)까지 똑같다. 홈에서 열리는 만큼 내심 승리를 노리고 있다. 만약 토트넘이 승리한다면 조 2위까지 주어지는 16강 진출을 사실상 확정한다.



/뉴시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